

# 선진국형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을 위한 독일 주요 기관 방문 출장 보고

(‘19. 11. 13, KDI)

## I 출장 배경 및 목표

### 1. 출장 배경

- 3만 불 시대를 넘어 최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난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로 정립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할 필요
  - 기존의 획일화된 경제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확립할 필요
  - 선진국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전략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

### 2. 출장 목표

- 과제의 취지에 따라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부문별로 진단하고 선진사례로 여겨지는 독일의 현황 및 정책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 본 출장은 과제의 여러 파트 중 산업구조 변화, 기업생태계, 대외교역, 노동시장 부문의 현황 파악 및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관련 독일 전문가들과 면담이 예정됨.
  -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독일의 경제 정책 수립 방향과 경험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 한국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II 출장 개요 및 세부일정

### 1. 출장 개요

- 과제명: 「선진국형 경제 패러다임의 정립: 3만 불 시대의 중장기 정책방향」
- 출장기간: 2019년 10월 13일(일) ~ 2019년 10월 20일(일), 출입국일 포함
- 출장지역: 독일(프랑크푸르트, 예나, 뮌헨, 만하임)
- 출장자: 총 5명

성명	소속 및 직위
남창우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정규철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박우람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이진국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이인정	경제전략연구부 전문연구원

### 2. 세부 일정

- 방문 기관 및 활동 내용

일자	시간	활동 내용
10.13(일)	12:50~17:40	인천 출발 - 프랑크푸르트 도착
10.14(월)	10:00~12:00	VDMA(독일기계협회) 방문 면담
10.15(화)	13:00~15:00	Kotra Frankfurt KBC 방문 면담
10.16(수)	14:00~16:00	FSU Jena(예나대학교) 방문 면담
10.17(목)	10:00~12:00	Max Planck Institute 방문 면담
10.18(금)	13:00~15:00	ZEW(유럽경제연구센터) 방문 면담
10.19(토)~20(일)	17:40~12:55	프랑크푸르트 출발 - 인천 도착

### III 출장 주요 내용

#### 1. 독일기계산업협회(VDMA)



□ 일시 및 장소: 2019. 10. 14(월) 10시, VDMA 회의실

□ 면담자

Dr. Christian Mosch (Forum Industrie 4.0)

Oliver Wack M.A. (Foreign Trade, Area Manager (East and South Asia))

□ 면담 내용

- VDMA는 유럽에서 가장 큰 산업조직이며, 현재 3,250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음. 대부분의 회원사(대략 90% 정도)가 독일에 위치해 있고, 몇 년 전부터 다른 유럽국가에 위치한 기업들에게도 개방되어 현재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위치한 기업들도 멤버십을 가지고 있음.
- 독일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독일의 특징은 힘과 노력을 협회와 같은 중간 조직을 활용하여 서로 공유하는 것임. 기업 각각은 인력과 역량의 부족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VDMA의 실무그룹과 같이 기업들이 서로 모여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VDMA는 125년 전부터 국가의 도움이 아닌 온전히 기업들의 회비로만 운영되었고,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 기업은 아주 작을 수 있지만 서로 힘을 합치고 합치면 하나의 큰 조직으로써 국제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 더 힘을 키워나갈 수 있음.

## 2. Kotra Frankfurt KBC

□ 일시 및 장소: 2019. 10. 15(화), 13시, 코트라 회의실

□ 면담자: 강환국 차장

□ 면담 내용

- 독일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적 균형과 질서를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Social market economy)임. 사회 보조금(Sozialhilfe)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자유를 헤치지 않도록 노력함.
- 독일경제의 경쟁력은 주로 히든챔피언을 통해 나오는데 독일 내에 약 1,300여개가 존재함. 독일 수출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히든챔피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매우 높음. 주로 가족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B2B 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지만 사실은 독일 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소도시 및 지방에 위치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독일의 교육제도는 매우 어린 나이에서 진로가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Grundschule)에서 4년간의 교과 과정을 수료하고, 5년째에 담임과의 상담과 학생의 선택 등에 따라 대학 진학을 위한 김나지움(Gymnasium), 실업교육을 위한 레알슐레(Realschule), 직업교육을 위한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로 진학함. 보통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의 진로에 대하여 담임선생님이 제시하는 의견을 학부모들이 존중하고 따름. 이러한 교육제도의 핵심은 진로에 대한 조기 결정을 수용하여 추후 직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있음.

## 3. 예나대학교(FSU Jena)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14시, zur Rosen

□ 면담자

Prof. Dr. Uwe Cantner (Chair of EFI, Chair of Microeconomics)

PD Dr. Holger Graf (Lecturer, Microeconomics)

Prof. Dr. Andreas Freytag (Chair of Economic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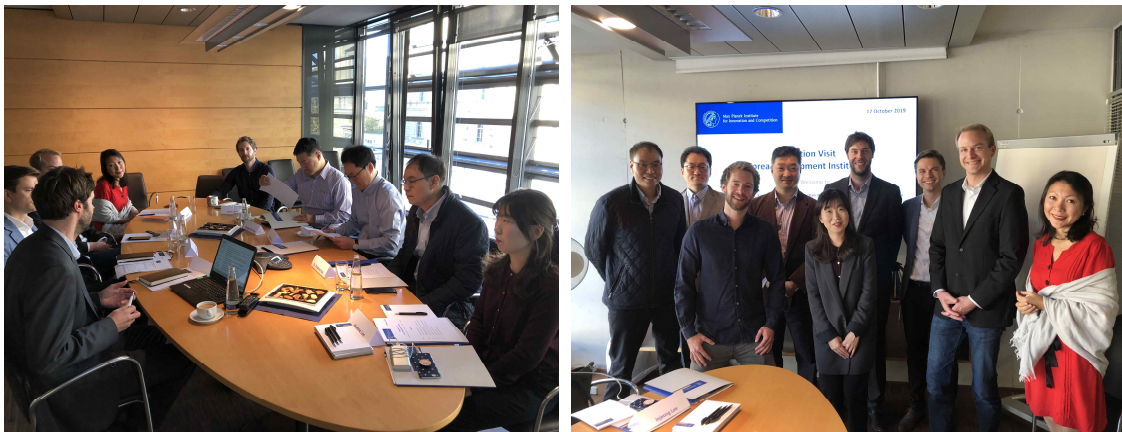
Prof. Dr. Silke Übelmesser (Professor of Public Finance)

Prof. Dr. Matthias Menter (Chair of Business Dynamics, Innovation and Economic Change)

□ 면담 내용

- 독일경제는 지난 몇 년 동안 고용률, 인플레이션율, 무역수지 등이 안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독일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국가들은 독일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경제적인 압력에 놓여 있었고, 그로 인해 이미 독일보다도 먼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뛰어 났음. 독일이 이러한 고민들에 소홀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EFI(독일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 보고서가 다루는 주제는 위원들의 자유에 맡겨지는데 위원들이 관측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실들이 설명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술들이 독일경제의 미래에 중요한지 등에 대하여 몇 주 동안의 논의들을 거쳐 주제를 선정함.
- EFI의 보고에 대하여 독일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

4. 막스플랑크 혁신경쟁정책연구소



□ 일시 및 장소: 2019. 10. 17(목), 10시, MPI 세미나실

□ 면담자

Dr. Marco Kleine (Senior Research Fellow)

Daniel Wittenstein, M.Sc. (Doctoral Student supported by the MPI)

Jonas Heite, M.Sc. (Junior Research Fellow)

Dr. Alexander Suyer (Senior Research Fellow)

Daria Kim (Junior Research Fellow, Dep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 면담 내용

- 본 연구소는 Max Planck Society의 84개 기관 중 하나이며 1966년 처음 설립될 때의 이름은 국제 특허 저작권 및 경쟁법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patent copyright and competition law)였음.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자 경제 연구 파트가 추가되었으며 2016년에 본 연구소는 50주년을 맞이함.
- MPI의 연구 주제는 대중의 관심사들을 주로 다룸. 정책 입안자들은 종종 어떤 현상들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MPI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공 연구기관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일깨우고, 대중들이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 역할을 함.
- 지식재산권 연구 파트와 경제 연구파트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며 혁신과 경쟁을 분석하는 광범위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음. 지재권 연구자들이 경제학자들과 가장 많이 공유하는 연구관심사는 혁신과 혁신프로세스임. 두 학제간의 공동연구는 관련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며 어떤 법적 장치들이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음.

5. 유럽경제연구센터(ZEW)



□ 일시 및 장소: 2019. 10. 18(금), 13시, ZEW 회의실

□ 면담자

Dr. Melanie Arntz (Deputy Head, Labor Market)

Dr. Georg Licht (Director, Innovation Policy)

Dr. Thomas Niebel (Digital Economy)

□ 면담 내용

- ZEW는 라이프니쯔 연구협회 소속의 경제연구소이며 노동경제, 혁신정책, 디지털경제, 금융, 환경, 조세 등과 같이 경제 전반을 연구함.
- 만하임 혁신 패널(Mannheim Innovation Panel)과 같은 독일 혁신 기업 조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음.
- 어떠한 경제정책의 시행은 그 영향이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 전체와 연결되기 다른 사회 정책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